

지상진료실

치아 손상(tooth injuries)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방사선학교실

강 병 철

목 차

1. 치아 진탕
2. 치아 탈구
3. 완전 치아 탈구
4. 치아 파절
 - a. 치관 파절
 - b. 치근 파절
 - c. 치관-치근 파절

2. 치아탈구(tooth luxation)

치아탈구는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로부터 이탈되어 동요와 전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상력에 의하여 치조골방향으로 전위하는 돌입 탈구(intrusive luxation: 환자는 치아가 빠

져나가고 잃어 버렸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 치조와로부터 부분 이탈되는 정출 탈구(extrusive luxation), 치아 축방향이 아닌 위치로 이동하는 측방 이동(lateral displacement)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선사진상에서는 치주인대 간격의 비후, 소실등이 나타날 수 있고, 유치의 경우 발육 중인 영구치와의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처치는 외상후 즉시 정상위치로 회복시키고(대개 손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지대치 연결 고정법(splinting)을 이용한다. 만일 탈구된 치아의 치근단이 발육 중인 영구치 부위에 있다면, 탈구된 치아를 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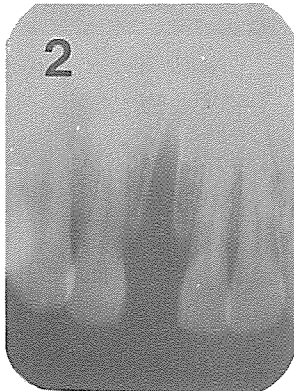


사진 1. 우측상악 중절치는 정출탈구와 측방이동이 함께 일어난것으로 치관이 정중선쪽으로 이동된 것이 보이고 치주인대간격이 현저히 증가되어 있으며 절단면의 파절도 관찰되었다.

사진 2. 사고당시의 방사선 소견상 돌입탈구된 우측상악 중절치는 치근단 치조백선의 소실과 절단면 중앙부위에 파절이 관찰되었다.

사진 3. resin과 wire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1년뒤에 external resorption을 나타내었다.